

15분 모의고사 5회 정답 및 해설

(0809 모의평가)

작 문

1. ②

1. 고쳐쓰기

정답해설 : 제시된 고쳐쓰기 방안 중 ②는 적절하지 않다. ②에서는 ‘사람들이’와 ‘느껴졌지요?’의 주어 - 서술어 호응을 문제 삼고 있는데, 그 문장을 살펴보면 두 개의 절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앞부분에 제시된 절에서 ‘사람들이’와 호응하는 서술어는 ‘열게 된다면’이며, 뒷부분의 절에서 ‘느껴졌지요?’와 호응하는 주어는 ‘복도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주술 호응에 문제가 없으므로 이를 고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답] ②

[오답피하기] ① <보기>의 둘째 문단은 ㉠에 관한 내용을 상세화하는 내용인데, 안여단이문과 밖여단이문에 관한 설명만 있을 뿐 안팎으로 여단은 문에 관한 설명은 빠져 있으므로 적절한 고쳐쓰기 방안이다. ③ 문장의 의미를 명확하게 만들기 위해 ‘부딪힐’이 요구하는 부사어인 ‘문에’를 보충하는 것은 적절하다. ④ ㉡의 바로 앞부분에 제시된 내용을 지시하는 것이며 인과 관계로 연결되는 문맥이 아니므로 ‘그렇기 때문에’보다는 ‘이렇게’가 적절하다. ⑤ ㉢의 전후 문맥은 여단이문의 여는 방향과 관련되므로, ‘문을 여닫기 위한 공간의 필요성’은 문맥을 벗어난 내용으로 볼 수 있다.

문 법

2. ① 3. ⑤

2. 어휘 · 어법 (자료를 통한 어법 사용의 이해)

정답해설 : <보기>에 제시된 사례들은 종결어미의 다양한 형태를 보여주는 경우이다. 이 사례들을 분석하면 종결어미가 다양한 문법적 요소를 담고 있으며 실제 발화 상황에서 이를 표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①은 적절한 진술로 보기 어렵다. 제시된 종결 어미들 중 문장의 과거 · 현재 · 미래와 같은 시제를 표시하고 있는 경우를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답] ①

[오답피하기] ② ‘똑똑하다고’의 ‘-고’, ‘가느냐가’의 ‘-가’는 문장 성분을 표시해 주는 조사로 종결어미 뒤에 사용되었다. ③ ‘그치겠다’의 ‘-다’는 진술, ‘그치겠니?’의 ‘-니?’는 의문, ‘그치겠구나!’의 ‘-구나!’는 감탄의 의도를 나타낸다. ④ ‘듣습니까?’의 ‘-습니까?’, ‘듣소?’의 ‘-소?’는 발화 상대의 지위나 연령에 따른 높임의 태도를 나타내는 상대높임법을 위한 어미이다. ⑤ ‘앉아라’의 ‘-아라’는 명령형 종결 어미로 ‘가다’와 ‘가다’로 끝나는 동사, ‘오다’와 ‘오다’로 끝나는 동사를 제외하고 끝 음절의 모음이 ‘나, ㄱ’인 동사 어간 뒤에 붙으며, ‘먹어라’의 ‘-어라’ 역시 명령형 종결 어미로 끝 음절의 모음이 ‘나, ㄱ’이 아닌 동사 어간 뒤에 붙는다.

3. 어휘 · 어법 (어휘의 특성 이해)

정답해설 : <보기>에 제시된 내용은 ‘동사의 뜻은 그 동사가 쓰이는 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과, 사전에 실릴 때 그 동사가 쓰이는 구조를 뜻풀이 앞에 제시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특정한 동사를 제시하며 그 뜻풀이와 동사가 쓰이는 구조가 잘 연결되었는지를 평가하라는 것이다. 이런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는 것은 ⑤이다. ‘여기다’의 뜻풀이도 적절하며, ‘여기다’가 쓰이는 구조에서 필요한 성분인 주어, 목적어, 부사어를 표시하는 조사도 적절하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답] ⑤

[오답피하기] ① ‘깎다’의 뜻풀이는 ‘젓혀서 벌리다’가 아니라 ‘바닥에 퍼놓다’이다. ② ‘스치다’의 뜻풀이는 ‘세계 닿거나 마주치다’가 아니라 ‘서로 살짝 닿으면서 지나가다’이다. ③ ‘말기다’의 뜻풀이는 적절하나, 쓰이는 구조에 대한 표시로는 ‘...이 ...을’이 아니라 주어, 부사어, 목적어를 표시하는 ‘...이 ...에게 ...을’이 적절하다. ④ ‘푸다’의 뜻풀이는 적절하나, 쓰이는 구조에 대한 표시로는 ‘...이 ...에서’가 아니라 주어, 부사어, 목적어를 표시하는 ‘...이 ...에서 ...을’이 적절하다.

독 서

4. ⑤ 5. ③ 6. ③

[4~6] 예술, ‘칸트의 미적 무관심성’

지문해설 : 이 글은 칸트의 ‘미적 무관심성’이라는 미학 개념을 ‘무관심적 관심’, ‘목적 없는 합목적성’으로 설명하고 있다. 예술의 고유한 가치를 옹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미적 무관심성’이 지나치게 강조될 경우 예술의 지적, 실천적 역할이 도외시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즉, 예술의 고유한 가치는 진리나 선과 같은 가치 영역들과 유기적인 조화를 이룰 때 더욱 고양될 수 있다는 것이다.

[주제] 예술의 고유한 가치와 실천적 역할의 조화

4. 사실적 사고(문맥적 의미에 대한 이해)

정답해설 : ‘독립 선언이 곧 고립 선언은 아니다’라는 의미는 예술의 고유한 가치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다보면, 다른 가치 영역들과 유기적인 조화를 이루기 힘들어 언급한 것이다. 즉 예술의 가치에 대한 ‘고립 선언’을 부정하는 것은, 예술이 사회에 대한 실천적 역할을 도외시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답] ⑤

5. 추론적 사고(핵심 관점의 이해 및 적용)

정답해설 : 칸트의 ‘미적 무관심성’이란 대상이 주는 모든 의적 관심을 배제한 상태에서, 오로지 대상의 내재적인 미적 형식에만 집중하는 마음의 작동 방식을 가리키는 미학의 개념이다. 이는 대상의 형식적 측면에만 관심을 갖는 ‘무관심

적 관심'이고,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관심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목적 없는 합목적성'에 해당한다. 따라서 영화를 감상할 때 영화의 색채 묘사나 카메라의 시점 처리와 같은 형식적 측면에만 관심을 집중시킨 ③이 칸트의 입장과 가장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답] ③

[오답피하기] ① '모순 고발과 전망 제시'라는 영화 제작의 의도에 관심을 갖고 있다. ② 영화를 '보고 즐기는 생활의 활력소'가 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으므로, 목적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영화 '주인공'에 관심을 갖고 있다. ⑤ '새로운 깨달음'을 영화의 목적으로 보고 있다.

6. 추론적 사고(자료 해석의 적절성)

정답해설 : <보기>에 제시된 ' 쇠베르크의 음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음의 높낮이와 리듬'과 같은 형식적인 측면을 도외시할 수 없고, '주음-부음 관계를 파괴하는 불협화음 전략'에 담겨 있는 억압적 사회 구조에 대한 비판적 태도도 간과할 수 없다. 음악이 갖고 있는 내적 의미 파악과 음악 외적인 지적·실천적·역할 모두를 추구하고 있는 음악이라 평가할 수 있다. [답] ③

문 학

7.② 8.② 9.④ 10.②

[7-10]현대소설 - 이상, '날개'

작품해설 : 이 작품은 현대인의 도착된 삶과 자아 분열의 의식 속에서 내면에 대한 성찰을 그린 초현실주의적 경향의 심리 소설이다. 이 작품은 억압적인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현실과 동떨어져서 살아가는 지식인이 차츰 현실을 인식하고 억압적인 현실에서 탈출하여 자기 정체성을 되찾고자 하는 몸부림을 그리고 있다. 주인공 '나'는 매춘부인 아내에게 기생해 사는 무기력한 지식인으로, 일상적인 상식의 세계에서 벗어나 그날 그날을 맹목적으로 살아간다. 아내의 매음 현장은 그에게 금단의 공간이며, 아내의 매음 시간은 아내가 준 수면제에 의해 잠들어야 하는 시간이 된다. 여기에 제시된 부분은 이 작품의 결말 부분으로 '나'의 심리적 변화 과정이 나타난다. '나'는 '정오 사이렌'을 계기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이를 통해 '재생'의 욕망으로 불타게 된다. 여기서 '날개'는 억압된 세계, 전도된 질서로부터의 해방을 상징한다.

[주제] 무기력한 삶과 자아 분열 속에서 벗어나 본래의 자아를 찾으려는 의지

7. 비판적 사고(서술상의 특징과 효과 파악)

정답해설 : 이 소설은 객관적인 진술보다는 서술자인 '나'의 의식의 흐름에 따라 전개되며, 독백적 어조를 통해 현실과 동떨어져 살아가는 서술자의 내면 의식을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기법은 '나'가 지닌 자의식의 혼란과 자아 분열을 그대로

로 옮겨 놓은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 작품에서는 '피곤한 생활이 푹 금붕어 지느러미처럼 흐느흐느 허비적거렸다.', '우리 부부는 숙명적으로 발이 맞지 않는 절름발이인 것이다.', '사람들은 모두 네 활개를 펴고 닭처럼 푸드덕거리는 것 같고~'와 같은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인물의 생각과 인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오답피하기] 단정적이고 객관적인 진술로 사건에 사실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회상의 기법이 나타나긴 하지만 그것을 통해 현재와 과거의 화해를 지향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답] ②

8. 추론적 사고(소재의 기능 추리)

정답해설 : 작품 속에서 특정 소재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묻는 유형이다. 이 작품의 배경인 일제 강점기의 서울에서 '미쓰코시' 백화점 옥상은 매우 높은 곳이었기에 건물 주변을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곳이었다. 이 옥상에 올라와서 '나'는 비로소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내면적 성찰을 한다. 또한 옥상에서 '회탁의 거리'를 조망하면서 '나'와 '회탁의 거리' 사이의 괴리감을 드러내기도 한다. 또한 '나는 피로와 공복 때문에 무너져 들어가는 몸뚱이를 끌고, 그 회탁의 거리 속으로 섞여 들어가지 않을 수 없다'고 표현한 것으로 볼 때, 옥상에서 바라본 '회탁의 거리'를 부자유와 체념의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미쓰코시 옥상이나로 하여금 이전과는 다른 삶의 태도를 갖게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주인공인 서술자가 이전과는 다른 삶의 태도를 갖게 되는 계기는 '미쓰코시 옥상'이 아니라 '정오의 사이렌'이다. [답] ②

9. 비판적 사고(감상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이 작품에서 사건의 전반적인 흐름에 나타나는 '나'의 심리 변화에 주목해 볼 때, ㉠ 이후로 '나'의 심리가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이후 '나'는 수동적이고 폐쇄적인 삶에서 벗어나 자신의 의지가 담긴 생활을 하고자 하는 의식의 전환을 보여 주고 있다. 이는 '정오의 사이렌' 소리가 '나'의 생명력을 일깨운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보기>를 참조할 때 '정오'의 함축적 의미 때문에 ㉡을 경계로 어조와 분위기가 바뀐 것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은 주인공의 의식의 전환을 보여줄 뿐, 자아의 문제에서 사회 문제로 시선을 전환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는 적절하지 않다. [답] ④

[오답피하기] ⑤ <보기>에서 '정오'를 '각성과 재생의 시간'으로 언급한 것으로 볼 때, 이 작품을 읽을 때는 시간의 물리적인 의미보다 심리적인 의미에 중점을 두어야 함을 알 수 있다.

10. 추론적 사고(사건의 상징적 의미 이해)

정답해설 : 이 작품에서 '나'가 아내 몰래 집에서 나온 것은 패쇄적이고 무기력한 삶에서 탈출하고자 하는 몸부림일 뿐 이므로, 이를 현대 문명의 구속에 맞서고자 하는 지식인의 적극적인 대결 의지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답]

②

[오답피하기] ① <보기>에서 '아내'가 현대 문명을, '나'가 지식인의 내면 세계를 상징한다고 한 것으로 볼 때, 이 작품에서 '아내'가 '나'를 의심하면서 따지는 것을, 지식인의 내면 세계에 대한 현대 문명의 위협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다.

③ 이 작품에서 '나'는 '아내'를 완전히 떠나겠다고 생각하지 못하는데, <보기>의 설명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현대 문명과 결별하기 어려운 지식인의 의식 상태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⑤ '나'의 머릿속에서 희망과 야심의 말소된 페이지가 번뜩인다고 한 것은, 사라졌던 '나'의 희망과 야심이 다시 살아남을 표현한 구절이므로, 현대 문명에 대한 비판 의식을 회복하고자 하는 지식인의 소망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